

#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

계북면에 40억원 투입 조성…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 내년 12월까지 준공 계획

장수군 계북면에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이 추진된다.

'참샘골 행복주택'은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동부권특수학교(학생 10학급 70명, 교직원 26명 예정)의 학생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후 순위로는 학교 관계자와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귀농·귀촌 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된다.

군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해 대지 2,396㎡, 건축면적 517㎡(연면적 1,356㎡, 지상 4층, 18세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설계와 착공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참샘골 행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은 (주)로만디코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것으로 군은 당선작이 평형별 주택과 부대시설의 조합이 실용적



장수군 계북면 '참샘골 행복주택' 기본구상도

일 뿐 아니라, 공모 지침에 충실히

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다른 면 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해 군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전춘성 진안군수,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TV조선 주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

전춘성 진안군수(사진)는 19일 서울 더플리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TV조선 주관의 202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매년 각 분야에서 발전 및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CEO를 선정하고, 수상자들의 우수 경영 및 활동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다.



전춘성 군수는 민선 8기를 맞아 과감한 혁신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안군 성공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비전으로 삼고 적극적인 혁신행정을 펼쳐 온 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원도심 확장을 위한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진안형 스마트팜 조성,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체계근로자 도입 등을 추진하고, 생태·문화지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용담호 감성관광밸트 에코토 퍼아 사업, 응천전적지 역사문화공원을

추진하는 등 행정 각 분야에서 꾸준한 혁신행정을 펼쳐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생태관광도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특례 법률에도 적극 앞장서 으며,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등 각종 규제로 개발제한이 많은 법적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왔다.

전춘성 군수는 "경제, 문화관광, 복지, 인재양성, 소통행정 등 군정 전 분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혁신하여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군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장마철 앞두고 공공수역 불법행위 차단 주력

무주군이 장마와 가뭄에 대비해 21일 까지 5일간 6개 읍면을 순회·지도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농업기술센터 내 지도·연구직 공무원들과 각 읍면 상당소장 등 29명으로 기술지도반을 구

성했으며 벼, 콩, 고구마 등 식량작물과 뿌·배추, 고추 등 제소류, 과수, 인삼 등 작목별로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책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 농가들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자료에는 병해 등 작목별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전·후 대책들도

상세히 담겨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는 밭작물 대상 사전 피해 예방법과 관리 요령, 가뭄 뒤 폭우 등 토양수분 급변화에 따른 농작물을 관리 요령, 폭염 피해 예방 및 온열질환 대응 요령 등을 지도하고 있으며 장마철 배수로 정비 및 시설물 점검 등도 병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상생' 농촌봉사활동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호남대 산학협력단, 협약 체결



무주군 무주읍 상권활성화 추진단(단장 최은영)과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 이무형)이 지난 17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농촌봉사활동'으로 첫 결실을 맺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와 물리치료학과 치위생과, 항공서비스학과 학생과 교직원 등 40여 명이 무주를 찾아 19일까지 설천면 외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와 음식 나눔, 구강보건 교육, 보건의료 활동 등의 전공과 연계한 재능기부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복숭아 봉지씌우기 등 농가 일손 돋기에도 나서 농촌봉사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호남대학교 학생들은 "시골에 와 보니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 너무들 반겨주시고 행려주셔서 오히려 감사했다"며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말벗도 꽤 드리고 머리도 해드리면서 2박 3일 동안 정말 보람있게 보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갱년기 극복 건강 관리교실 프로그램 수료식

진안군은 19일 보건소에서 갱년기 여성의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인 '갱년기 극복 건강관리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갱년기 증상은 주로 40~60대의 60~80%가 경험하며, 만성질환과 우울증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증상에 대한 이해와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1주에 걸쳐 20명을 대상으로 △갱년기 특징 교육 △울바른 걷기운동 △홍삼스파 △공예만들기 △마음수련 요가 △심리정서 지원 원예수업 △약선 음식 만들기 △사전·사후 평가 등으로 구성 된 교육을 운영했다.

특히 사업 전후로 갱년기 증상 척도, 건강 인식도 행태변화, 우울증 선별도구, 체성분 분석, 혈액검사 등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 변화도 같이 확인하며 실제 교육의 효과를 확인했다.

갱년기 극복 한의약 건강관리 교실에 참여한 대상자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 만족함을 나타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일상의 힐링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

리영현 진안군 보건소장은 "갱년기는 오춘기라고 불릴 만큼 중년의 시기를 맞아 인생의 다양한 변화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건강관리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6월 정기분

### 자동차세 부과

진안군은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108건, 10억9,300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 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하여 부과하는데, 1월,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